

2017년 10월 17일

투자전략 Daily

• 투자전략

신재생 에너지 3020: 새 주도 테마 탐구

• 중화권 증시 동향

위험회피 성향 강화, 중국 증시 약세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한솔케미칼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이엠텍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음식료, 항공, 기계, 나스미디어, 삼성전자, 송원산업, CJ CGV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전략 총괄 | 노근환
투자 전략 | 박소연
시황 분석 | 김대준
계량 분석 | 안혁
스몰캡 전략 | 정훈석
해외주식 | 백찬규
중국시장 | 최설화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글로벌기업 | 정희석
자산배분전략 | 정현종
경제 분석 | 박정우
채권 분석 | 오창섭
크레딧 | 김기명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0/10(화)	10/11(수)	10/12(목)	10/13(금)	10/16(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433.81	2,458.16	2,474.76	2,473.62	2,480.05	
	등락폭	39.34	24.35	16.6	-1.14	6.43	
	등락종목	상승(상한)	364(0)	513(0)	452(0)	272(0)	394(1)
		하락(하한)	450(0)	281(0)	330(0)	519(0)	411(0)
	ADR	78.17	83.85	87.98	81.95	86.29	
	이격도	10 일	101.61	102.45	102.87	102.54	102.42
		20 일	102.36	103.10	103.46	103.13	103.11
	투자심리	30	40	50	50	60	
	거래량	(백만 주)	222	202	256	235	223
	거래대금	(십억 원)	7,508	6,086	6,282	6,824	6,104
코스닥	코스닥지수	654.59	662.31	666.54	663.08	659.41	
	등락폭	1.77	7.72	4.23	-3.46	-3.67	
	등락종목	상승(상한)	416(0)	828(2)	559(2)	269(1)	358(1)
		하락(하한)	737(0)	305(0)	583(0)	896(0)	803(0)
	ADR	76.05	82.22	81.86	74.97	75.95	
	이격도	10 일	100.06	101.43	102.10	101.54	100.82
		20 일	99.60	100.67	101.21	100.65	100.05
	투자심리	40	5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554	558	561	617	549
	거래대금	(십억 원)	2,832	2,980	3,449	4,935	3,867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952.0	1,754.9	1,305.0	328.1	99.7	207.2	151.1	16.6	502.2	95.7
	매도	3,022.1	1,783.0	1,255.6	215.7	111.9	282.4	123.3	13.3	509.0	46.7
	순매수	-70.1	-28.2	49.4	112.4	-12.2	-75.2	27.8	3.3	-6.8	49.0
	10월 누계	-495.0	1,698.4	-1,158.3	-338.0	-82.9	-285.9	32.7	-18.0	-466.2	-45.1
	17년 누계	-6,004.6	6,896.9	-4,565.6	6,086.6	-1,665.0	-3,268.4	-87.2	-728.3	-4,903.5	3,673.2
	코스닥	매수	3,313.1	383.2	159.8	46.5	12.7	30.0	26.6	2.6	41.4
매도		3,187.9	357.4	297.8	73.1	21.4	80.6	48.9	2.3	71.6	33.9
순매수		125.2	25.8	-138.1	-26.6	-8.7	-50.6	-22.4	0.3	-30.1	-13.0
10월 누계		342.1	108.0	-418.7	-70.3	-25.0	-125.5	-59.2	3.4	-142.1	-31.3
17년 누계		3,054.7	2,102.7	-3,862.8	-987.8	-344.7	-862.8	-535.8	-118.2	-1,013.6	-1,294.7

신재생 에너지 3020: 새 주도 테마 탐구

2017년 Target KOSPI	2,600pt
12MF PER	9.88배
12MF PBR	1.10배
Yield Gap	8.2%P

- ▶ 신재생에너지: 정부 규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안
- ▶ 정부 에너지 정책은 내수 시장을 확대 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
- ▶ 신재생에너지의 단점 극복: ESS시장 동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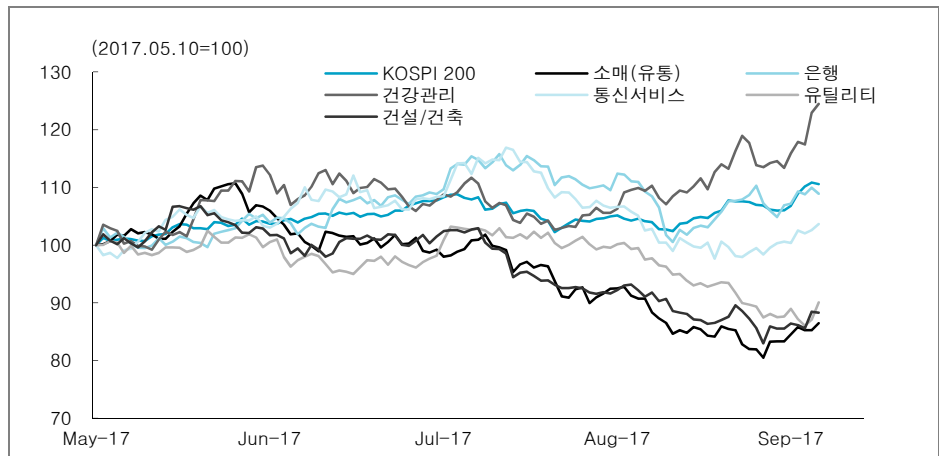
정부 규제 강화: 유통, 건설, 유틸리티 섹터 부진

■ 정부 규제 강화 추세: 신재생에너지로 시선을 옮길 때

최근 정부차원의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월 4일 휴무제 추진, 선택약정할인률 인하, 8/2 부동산 대책 등 기업에는 충분히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를 발표했다.

이와 같은 규제 강화는 주가에는 부정적이다. 기업의 활동 범위 축소, 영업비용 상승으로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규제 리스크도 높아져 투자심리를 침체시키는 효과도 야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강도가 가장 높았던 유통, 건설, 유틸리티 업종의 수익률이 전체 시장 수익률을 크게 하회했다.

[그림 1] 규제 리스크: 건설, 유틸리티, 유통 약세



주: WI26 기준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렇다면 오히려 정부가 육성하려는 섹터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하나의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섹터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논란이 된 포스코에너지의 삼척 석탄발전소 이슈도 이와 아주 무관하지 않다.

■ 신재생에너지 3020: 태양광, 풍력 중심의 에너지 믹스 추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높이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다. 선진국과 비교시 목표 비중은 낮을 수 있으나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06년 1%에서 2016년 4.0%로 다소 낮은 성장율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만만한 목표는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3020: 태양광, 풍력에 수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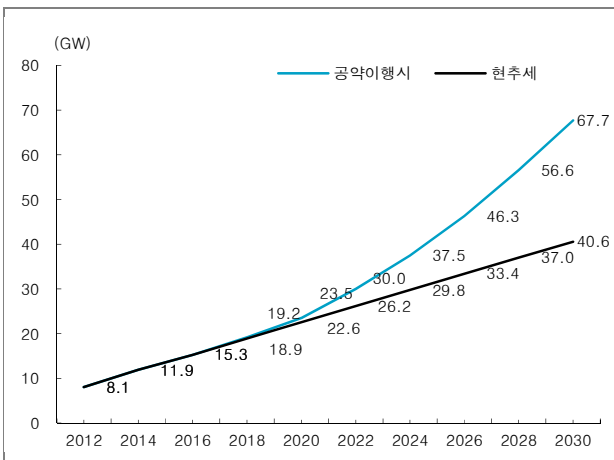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이 존재하지만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가 이번 정책으로 인해 특히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53GW의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어야 하는데 이중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가 80% 수준으로 보급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 추세인 연 1.7GW보다 약 2GW가 추가로 보급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책 중 1)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강화, 2)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재도입 3) 신재생에너지원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통한 설치 가능 지역 확대 등이 태양광과 풍력 산업 확대에 있어 긍정적이다.

RPS는 설비용량이 500MW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자들이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들은 직접 신재생 설비를 건설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의무량을 충당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23년까지 의무비율 10% 도달을 목표로 2012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이번에 2030년까지 28% 수준으로 상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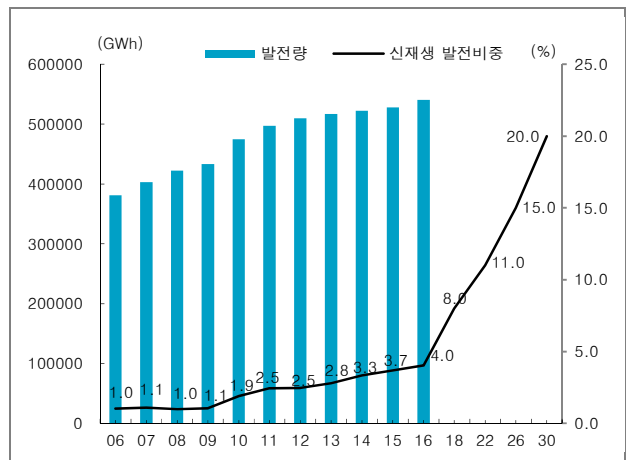
한편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RPS가 도입되기 전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적용되었던 제도인데 이번에 재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FIT는 쉽게 말하면 보조금 정책이다. 지정된 기준가격과 전력 거래 가격간의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줌으로써 발전사업가에게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주려는 의도다.

[그림 2] 연도별 신재생 설비용량 전망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신재생 발전비중 추이: 2030년까지 20% 목표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한국투자증권

일본의 경우 FIT 도입이후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FIT가 처음 도입된 2012년 전체 발전량의 0.4%를 차지한 태양광은 2016년에는 4.4%로 상승했다. 자체 에너지를 생산해 전력을 거래하는 프로슈머(Prosumer)가 활동하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제도들의 목적이다. 프로슈머의 증가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다.

이격거리 규제 개선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

신재생에너지의 주요 단점 중 하나는 면적이다. 일례로 1kW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7m²의 면적이 필요한데, 이번 정책 목표인 37GW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면적의 약 43%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토가 좁은 한국에서는 현실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급속도로 짓고 있는 태양광 농장(solar farm) 보다는 면적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도심형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격거리 규제 완화가 중요한 이유다. 현재 지자체 별로 이격거리가 100m에서 크게는 1km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 설치 가능 면적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림 4] 중국의 태양광 농장



자료: 팬더그린에너지그룹

[그림 5] 옥상을 활용한 싱가포르의 도심형 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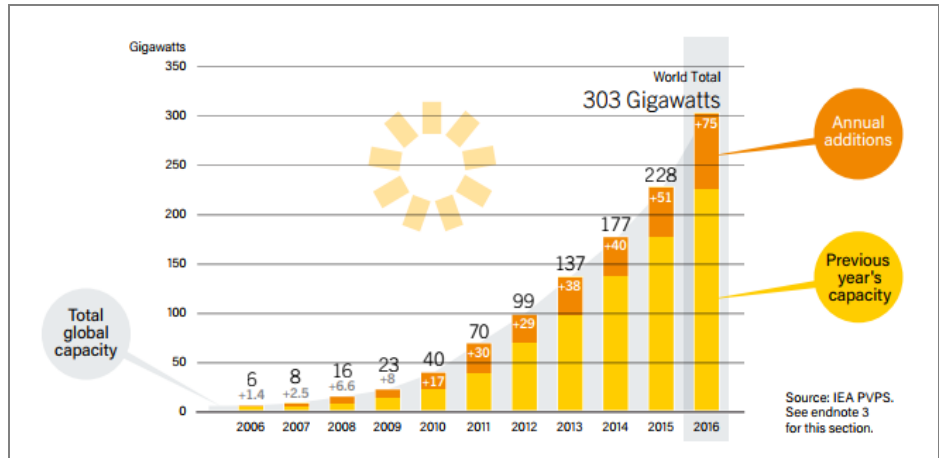


자료: Digitaltrends

또한 한국 태양광 시장의 경우 이번 정책으로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업체들의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현재 태양광 업체들의 수출 비중은 매우 높아 글로벌 사이클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제로 태양광 산업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폴리실리콘, 잉곳 및 웨이퍼, 셀, 모듈 중 국내 매출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모듈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물론 향후 글로벌 태양광 수요 전망은 밝아 높은 수출 비중이 반드시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태양광은 2016년 전세계적으로 75GW의 신규 설비용량이 추가되어 전체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량인 161GW중 47%를 차지한 만큼, 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림 6] 태양광 시장의 성장: 설비용량 증가폭 신재생에너지 중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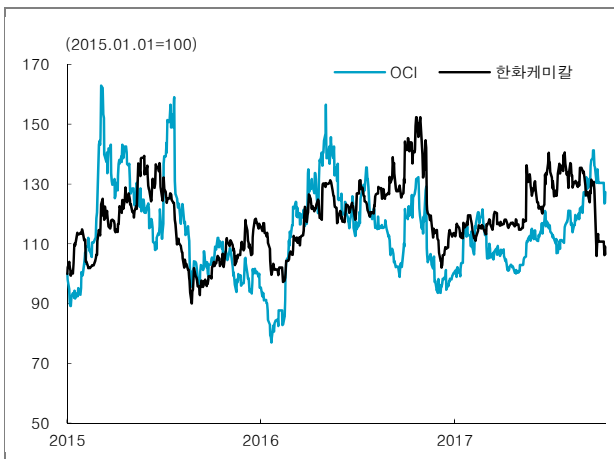


자료: REN21, 2017 Global Status Report

하지만 각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보호 무역주의 트렌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지난 9월 22일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만장일치로 한국, 중국 등 수입산 태양광 셀로 인해 자국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미국이 관세 인상등을 통한 무역장벽을 올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대미 수출 비중이 35%에 달하는 한화큐셀과 같은 업체들에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해당 이슈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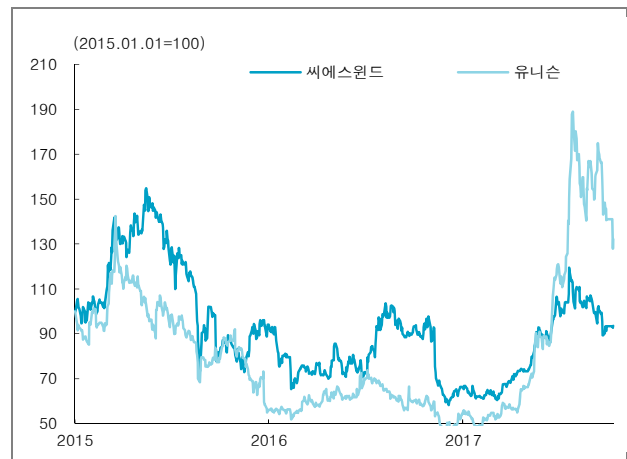
풍력 업체들도 기대된다. 태양광 업체들에 비해 국내 매출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큰 폭의 이익증가율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발전기 타워 생산업체들을 제외시 해외 시장 비중이 낮아 무역장벽 강화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 적다.

[그림 7] 태양광 제조업체 주가 추이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그림 8] 풍력 부품업체 주가 추이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표 1〉 태양광산업 밸류체인

	폴리실리콘	Ingot/Wafer	Cell	Module
Value Chain				
국가별 시장점유율	중국(34%) 미국(23%) 독일(20%) 한국(15%) 일본(7%)	중국(75%) 대만(9%) 일본(6%) 한국(5%) 독일(1%)	중국(64%) 대만(19%) 일본(5%) 독일(2%) 한국(2%)	중국(67%) 일본(6%) 한국(3%) 대만(3%) 미국(3%)
기술경쟁력(선진국=100)	98	91	92	93
주요기업	OCI 한국실리콘 한화케미칼	웅진에너지 넥슬론 SKC솔믹스	한화큐셀 현대중공업 LG전자 신성솔라에너지	한화큐셀 현대중공업 LG전자 에스에너지
수출비중	86.9%	90.3%	75.4%	47.4%

주: 수출비중은 매출액 대비(2014년 기준)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투자증권

〈표 2〉 풍력산업 밸류체인

	타워	블레이드	증속기	발전기	시스템
Value Chain					
한국 시장점유율	해외(12%) 국내(100%)	해외(0%) 국내(1.3%)	해외(0%) 국내(0%)	국외(0.1%) 국내(25.9%)	국외(0.1%) 국내(46.9%)
기술경쟁력(선진국=100)	100	70	65	90	70
주요기업	CS윈드 동국 S&C	KM 휴먼컴퍼짓		현대중공업 유니슨 효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유니슨 두산중공업
수출비중	97.1%	0%	0%	13.4%	7.9%

주: 수출비중은 매출액 대비(2014년 기준)
자료: 한국풍력협회, 한국투자증권

ESS는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출력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

■ ESS: 신재생에너지의 필수 파트너

하지만 풍력과 태양광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약점이 있다. 전력 최대 수요가 나타나는 시간대와 전력출력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독립시스템운영국(CAISO)에서 처음 발견한 덕 커브(Duck Curve) 현상이 대표적이다. 일출을 기준으로 총 수요(total load)에서 태양광 발전량을 차감한 순부하(net load)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과잉공급이 나타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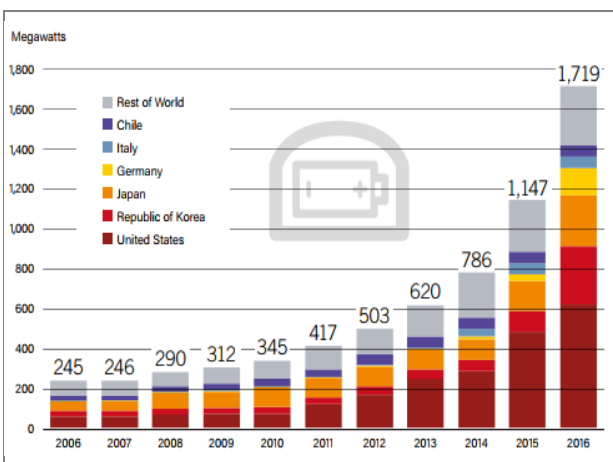
이와 같은 수급 불균형을 타개하는 방안 중 하나로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이 주목받고 있다. ESS는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놓았다가 최대 수요(peak demand) 시간대에 전력을 그리드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원이 가지는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

이에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함께 ESS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ESS를 도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갖췄고,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ESS 설치를 의무화 시켰다. 한국도 공공기관에 2020년까지 ESS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지침을 내렸다.

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의 증가와 함께 에너지 저장배터리 시장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2016년 글로벌 배터리 저장 용량은 약 0.6GW증가해 1.7GW 수준이고, 한국은 이 증가분 중 0.2GW를 차지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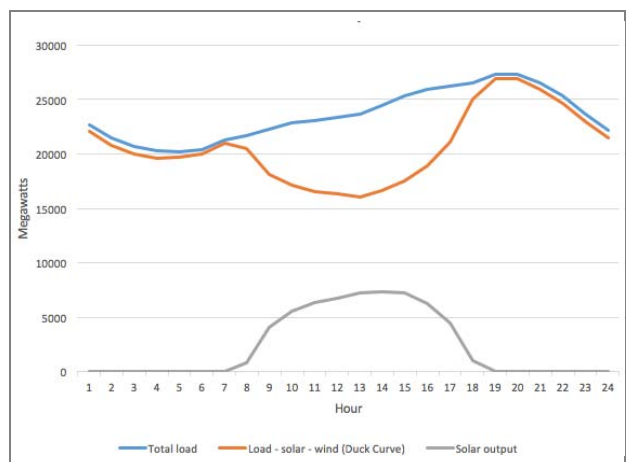
ESS에는 리튬이온배터리를 비롯해 전압을 통제하는 전력변환장치(PCS)와 운용 체제인 전력제어시스템(PM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ESS 시장의 성장으로 배터리 생산업체인 LG화학, 삼성SDI 뿐만 아니라 PCS, PMS를 제공하는 LS산전, 효성 등을 비롯해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통신업체들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두산중공업과 LS산전의 경우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도 진출한 상태다.

[그림 9] 글로벌 배터리 저장 용량



자료:REN21

[그림 10] 신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



자료: CAISO

■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예산 집행**

정부의 바램대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높이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번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구체적인 재원 확보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앞서 서술했듯이 목표 도달을 위해서는 53GW의 신규 설비용량이 요구되는데 과거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규모를 바탕으로 추정시 2030년까지 약 29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 2.9조원 정도가 필요한 것이다.

2017년 한국이 신재생에너지에 할당 예정인 금액은 7,474억원인데, 이 재원은 현재 약 4.1조원 규모의 전력사업기반기금에서 나오고 있다. 따라서 3020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불가피한데,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1) 전기요금의 1.5%~2.0%에 해당하는 부담금 부과, 2) 에특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 추가확보, 3) 원자력발전용 연료에 개별소비세 부과, 4) 전력기금의 여유자금 1회성 전입이 제시됐다.

〈표 3〉 신재생에너지산업 재원 확보방안

방안	세부내용	확보가능 금액
전기요금의 1.5%~2.0% 부담금 부과	신재생 사용에 계획된 7,474억원 포함	8,260억원~1조 2,360/년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금 요율 상향조정	연 0.1%	600억원/년
전력기금의 여유자금 전입		1.3조원(1회)
에특회계 예산 추가확보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에특회계로 전입 후 신재생기금의 전입금으로 확보	9,180억원/년
에특회계의 예산배분조정	에특회계 5조 7,604억중 일부 전입	1.5조원/년
원자력발전용 핵연료에 개별소비세 부과	혹은 발전량에 부담금 부과	3,100억원/년 혹은 1.5조원/년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투자증권

확보방안대로 재원 마련이 차질없이 집행됐을 경우, 필요한 예산은 충족될 것으로 여겨진다. 계획대로라면 약 3.6조원에서 5.2조원이 연간단위로 마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연말 발표 예정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통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최종 확정지를 예정이다. 지난 정부들에 비해 구체적인 친환경 정책을 꺼낸 만큼, 앞으로 수혜 섹터인 태양광, 풍력, ESS시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위험회피 성향 강화, 중국 증시 약세

- ▶ 상해종합지수는 0.4% 하락, 이번주 당대회와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리스크 오프 심리 확대
- ▶ 홍콩H지수는 0.7% 상승, 경기지표 호조 기대감 속에 장기 금리가 상승하며 금융주 강세

상해종합지수 0.4% 하락,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계,
자동차 등의 업종 약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는 0.4% 하락한 3,378p로 마감했다. 거래대금은 2,217억위안으로 직전 일 대비 22% 증가했다. 장중 좁은 구간에서 등락을 보인 주식시장은 마감직전 하락 폭이 확대됐다. 주말에 발표된 경제지표와 금주에 발표될 경기지표들이 양호하게 발표될 것이라 기대 속에 10년물 채권금리가 연중 고점이 3.7%를 돌파했고, 견조한 경기 흐름 속에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 또한 이번 주 당대회와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리스크 오프 심리가 확대된 것이 주식시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따라서 금리와 연동된 은행, 보험 등 금융주가 상승했던 반면 신성장 산업들인 IT 업종이 크게 하락했다. 신성장 산업의 약세 속에서 차스닥 지수는 2.3% 하락한 1,883p로 마감했다. 한편 하락장 속에서도 외국인들은 후구통과 선구통을 통해 상해주식과 심천주식을 각각 3.1억위안, 11억위안 순매수했다.

홍콩H지수 0.7% 상승,
은행, 보험, 에너지, 산업재
등의 업종 강세

■ 홍콩 시장

홍콩H지수는 0.7% 상승한 11,603p 로 마감하며 연중 최고가 경신행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강세행세에 동조하며 상승 출발한 주식시장은 장중 강세를 이어갔다. 주말에 발표된 M2를 비롯한 통화지표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면서 통화 긴축 우려가 해소된 것과 본토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업종 별로는 은행, 보험, 에너지 등이 상승했다. 한편 대장주인 텐센트홀딩스(700.HK)를 비롯한 IT 업종의 강세 속에 항셱지수는 0.8% 상승한 28,693p로 마감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 중국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p, %)

구 분	10/16 (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3,378.47	-0.36	0.12	0.74	8.86
심천종합	2,005.95	-1.52	-0.42	0.90	1.87
차스닥	1,882.69	-2.25	-0.38	0.38	-4.05
홍콩H	11,602.92	0.72	1.91	4.84	23.50
Shibor 7일물 금리(% , %p)	2.85	-0.13	-2.62	0.57	11.99
Shibor 1개월 금리(% , %p)	4.04	-0.16	-0.23	2.32	22.29
중국국채 3년물(% , %p)	3.70	0.79	1.53	2.76	22.08
위안/달러 고시환율	6.5839	-0.04	-0.00	0.64	-5.09
역내 위안/달러	6.5904	-0.16	0.53	-0.23	5.38
역외 위안/달러	6.5835	-0.23	0.48	-0.13	5.96

주: 16일 오후 5시 37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기관 매수에 힘입어 코스피 또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

- 뉴욕증시는 기업실적 호조와 소비자태도 개선에 힘입어 3대 지수가 모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일제히 상승 마감. 2,480P선을 돌파하며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실현 매물로 하락반전하며 약세를 보였으나, 금융투자, 연기금 등 기관이 순매수세로 돌아서며 장 막판 반등에 성공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 반면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에도 불구하고 투신을 비롯한 기관 매도세로 장중 1.6% 이상 급락하며 650P선을 위협, 장 막판 하락폭을 다소 줄이며 659P로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국내 사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 성장성이 부각되며 CJ CGV가 급등했으며, 3분기 실적 호조 및 저평가 분석에 신세계푸드가 초강세를 보임. 3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면세점 규모 축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하나투어가 급등했으며, 갑상선 기능 진단기기 및 분석기기에 대한 미 FDA 승인을 취득한 바디텍메드가 견조한 오름세를 보임. 또한,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계약 연장으로 양국간 관계 개선 기대감에 카지노, 면세점, 화장품 등 중국 소비 관련주의 강세가 연이틀 이어졌으며, 중국 시장 진출이 기대되는 유아용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임. 반면, 총 6,93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현대상선이 급락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한 규제 우려에 아프리카TV가 신저가를 경신

종목/테마	내용
상신전자(263810) ▶22,000 (상한가)	신규 상장 첫날 상한가 - 전자부품 전문업체로 신규 상장 첫날 공모가를 상회하는 시초가를 형성 후 상한가 - 동사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주로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전자파 차폐(EMI) 감쇄 제품인 노이즈필터와 코일을 주력으로 생산 중이며, 주 고객사로 LG전자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둘의 매출 비중에 80%에 달함
철강주	철강가격 상승 기대감에 강세 - 중국의 철강 감산으로 철강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 세아베스틸(001430, +7.69%), POSCO(005490, +5.85%), 문배철강(008420, +5.59%, 동국제강(001230, +5.07%), 세아홀딩스(058650, +4.39%), 대동스틸(048470, +3.59%) 등 강세
유아용품 관련주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에 강세 - 한중 통화 스와프 계약 연장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515조원 규모의 중국 유아용품 시장 진출 기대감에 강세 - 제로투세븐(159580, +16.05%), 보령메디앙스(014100, +11.87%), 예림당(036000, +4.71%), 매일홀딩스(005990, +4.18%), 아가방컴퍼니(013990, +4.11%), 네오팜(092730, +3.03%)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용
LG생활건강(051900) ▶1,042,000 (+2.26%)	- 한중 통화스와프 거래 연장에 따른 한중 간 관계 개선 기대감 및 압축된 브랜드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전망에 신고가 경신
롯데하이마트(071840) ▶74,400 (+3.48%)	- 3분기 실적 호조 전망에 신고가 경신

단기 유망종목: 한솔케미칼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한솔케미칼 (014680)	71,200 (-0.8)	71,800 (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용 과산화수소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3분기 매출액은 1분기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 - 국내 공장이 100%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초부터 신규 설비가 가동되며 매출액 증가 전망 - 금년 초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DPT(Double Patterning Tech) 소재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테이팩스의 전자재료 사업도 신제품 공급으로 성장폭이 확대될 전망
포스코강판 (058430)	30,500 (+3.0)	29,600 (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P(World Premium) 제품 확대를 통한 제품믹스 개선 전망 - 3분기 중국 컬러강판 가격이 크게 상승해 하반기 실적 개선 예상 - 2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히 높고 높은 배당 성향으로 투자 매력 상존
신성델타테크 (065350)	3,945 (-7.3)	4,255 (8/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업체인 LG전자의 건조기 판매 급증과 더불어 세탁기, 청소기 등 프리미엄 가전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HA사업부의 성장 모멘텀 지속 전망 - 전기차 시장 확대에 배터리 부품 및 ESS부품 매출의 구조적 증가 예상 -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 반영이 종료되며 순이익이 지난해 대비 가파른 개선세를 보일 전망
아이콘트롤스 (039570)	25,300 (-6.3)	27,000 (8/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입주량 증가에 따른 스마트홈 사업부 매출 증가 기대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사업부의 사업성 부각 전망 - 안정적인 캡티브마켓, 계열사 지분가치, 스마트홈 및 지능형 빌딩 산업의 성장성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 -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이엘피 (063760)	22,450 (-18.2)	27,450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진율이 높은 중국 매출 비중이 지난해 30%에서 올해 50%까지 확대되며 수익성 향상 전망 - 본사 이전을 통해 2019년까지 법인세가 100% 감면되며 무차입 경영을 추구하여 재무건전성 우수 - 2017년 예상 PER 7.6배로 디스플레이 장비주 평균 PER 10.2배 대비 저평가 매력 부각
코웰패션 (033290)	5,390 (+29.4)	4,165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기반의 SPA 브랜드 전략을 통해 원가 경쟁력 확보와 추가 라이선스 브랜드 확대 가능 - 신규 런칭한 브랜드들이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고 기존 언더웨어 및 스포츠웨어 사업부도 견조한 성장 전망 - '17년 예상 PER 9.2배로 해외진출 및 사업영역 다각화를 통한 성장 가능성 대비 저평가 구간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2017년 8월 8일 현재 이엘피 발행주식의 자사주매매(신탁포함) 위탁 증권사입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이엠텍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7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이엠텍 (091120)	14,950 (+6.0)	14,100 (7/20)	256	21	15	1,060	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유일의 BA(Balanced Amature)스피커 생산 업체로 스피커 활용기술 발전에 따른 수혜 전망 - 지난해 베트남 공장 증설과 자동화 설비 확대를 통한 생산성 확대와 인건비 절감 예상 - 갤럭시노트8과 V30 출시로 하반기 마이크로스피커와 리시버 관련 매출 증가 전망 				
KG ETS (151860)	4,015 (-4.9)	4,220 (7/5)	125	20	15	428	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팀 판가와 동 가격이 동반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 - 국내 주요 FPCB업체들의 증설로 인한 전자소재 사업부의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지정 폐기물 비중 상승으로 환경 사업부의 수혜 전망 				
SK (034730)	305,000 (+8.9)	280,000 (5/29)	92,094	6,175	6,025	39,396	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주주환원정책과 재벌기업 지배구조개선 정책에 따른 수혜 전망 -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자회사들의 실적 상향 추세 지속 전망 - 실트론 인수를 통한 자회사 간 시너지와 탈석탄 발전정책에 따른 반사이익 전망 				
풍산 (103140)	56,000 (+37.3)	40,800 (5/23)	2,970	279	190	6,766	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로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전망 - 풍산 주가의 저평가 요인인 Roll margin(가공이익)이 과거 3~4%에서 올해 1분기 7%까지 상승하며 주가 할인 요인 제거 - 현재 주가는 2017년 예상 실적 기준 PER 6.0배, PBR 0.8배(ROE 14.4%)로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이지바이오 (035810)	5,960 (-9.6)	6,590 (5/17)	1,438	99	41	754	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계 및 돈육 시세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성수기 진입에 따라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호실적 달성이 가능할 전망 - 올해 당사의 자회사인 옵티팜 상장에 따른 공모자금 유입으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 - 6월 하림그룹의 지주사인 제일홀딩스의 코스닥 상장에 따라 당사의 주가가 재조명될 가능성 존재 				
오텍 (067170)	9,240 (-18.6)	11,350 (4/6)	828	37	17	1,288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대 최대치인 전국 입주 아파트 가구 수와 미세먼지 우려 등으로 기능성 에어컨 설치 및 교체 수요 증가 전망 - 2018년 페럴림픽 참가 선수를 위한 장애인용 버스 및 택시 부족으로 정부의 관련 투자 확대 가능성 - 작년 4월 인수한 오텍오티스 파킹시스템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하며 향후 오텍케어 통합빌딩관리 서비스(BIS)와 시너지 효과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음식료: 17/18년 재고율 소폭 하락 → 곡물가격 보험권 유지할 듯

■ 2017/18년 세계 재고율 전망치: 소맥 제외 모두 하락

미국 농무성(USDA)이 13일(현지 시간 12일)에 10월 세계곡물수급전망 보고서(이하 WASDE)를 발표했다. 2017/18년 주요 곡물의 재고율 전망치는 전월대비 옥수수, 대두, 대두박은 하락, 소맥은 상승했다. 17/18년 재고율은 소맥 36.3%(전월 35.7%), 옥수수 18.9%(19.2%), 대두 27.9%(28.3%), 대두박은 5.3%(5.5%)를 기록했다. 16/17년 재고율은 소맥 34.7%(전월 34.6%), 옥수수 21.4%(21.4%), 대두 28.7%(29.1%), 대두박 5.8%(6.0%)를 기록했다.

■ 생산 아직 양호하나, 소비도 개선 중

17/18년 소맥: 17/18년 예상 세계 기말재고율(기말재고/소비*100)은 전월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세계 생산 전망이 전월대비 6.3백만톤 상향된 데 기인한다. 호주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EU, 그리고 인도의 생산량이 상향조정됐다. 현재까지의 수확량을 감안할 때 러시아의 17/18년 소맥 생산량은 전월대비 1백만톤 늘어 사상 최고치인 82백만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EU의 생산량은 특히 프랑스의 작황 개선으로 2.2백만톤 상향된 151백만톤을 기록할 것이다.

17/18년 옥수수: 17/18년 세계 기말재고율 전망치는 전월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소맥과 마찬가지로 생산 전망이 6.2백만톤이나 상향됐지만, 소비 전망치가 이보다 더 크게 7.7백만톤 상향된 결과다. 나이지리아, 터키 등지에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의 옥수수 소비는 식품용, 사료용, 산업용(에너지 원료용) 모두에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17/18년 대두: 17/18년 예상 세계 기말재고율은 전월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타 곡물과는 달리 17/18년도의 생산과 소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16/17년 생산이 소폭 하향됨에 따른 기초 재고가 줄어 재고율이 하락했다. 전년도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생산량이 생산 수출 악화로 하향 조정됐다.

■ 곡물가격 보험권 유지, 업종지수 더 하락하지 않을 듯

전월에 곡물가격 보험을 예상했는데, 지난 1달간 곡물가격은 소맥 +4.4%, 옥수수 +1.0%, 대두 +3.9%, 원당 -0.1%의 등락률을 기록했다. 앞으로 곡물가격은 지난달 정도의 상승세는 실현할 수도 있으나, 여전히 큰 그림에서는 보험권을 뚫기는 어려울 것이다. 호주 생산이 가뭄으로 좋지 않지만 러시아와 유럽이 이를 만회할 정도로 생산을 늘릴 전망이다. 또한 기상 이변의 indicator인 ONI 지수도 중립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곡물 투기세력의 매수세도 약하다. 연말 곡물 휴경기에는 일반적으로 곡물가격의 변동성이 약해진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곡물가격이 보험권에 머무르면 음식료업황의 불확실성은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섹터 쏠림 현상으로 안정적인 펀더멘탈대비 음식료업종 주가의 낙폭이 컸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음식료업체에 대한 관심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번달 Top picks는 오�뚜기 등 경쟁사의 가격 인상 동참이 가시화되고 있는 농심, 하반기에도 실적 호전이 이어질 매일유업, 업황의 점진적 개선과 valuation 매력이 부각되는 CJ제일제당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항공: 9월 항공수송 실적 - 우려보다 양호한 여객 증가

■ 9월 우리나라 국제선 여객수 627만명(+3.8% YoY)

9월 국제선 총여객수는 10월 추석연휴로 인한 수요분산과 인바운드 여객 부진으로 전년대비 3.8% 증가에 그쳤다. 다만 우리나라 8개 항공사들의 9월 합산 유입여객수는 11.4% 늘었고 10월 황금연휴동안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아웃바운드 해외여행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선별로는 사드관련 중국 정부의 규제 영향으로 중국 여객수가 31.1% 감소했고, 미국 여객수 증가율은 성수기인 7~8월 대비 둔화됐다. 일본, 동남아와 함께 유럽노선 여객수 역시 20% 이상 늘었다. 한편 국내선 총여객수는 전년대비 6.6% 늘어난 285만명을 기록했다. 27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 국제선 점유율: LCC 26.8%(+6.4%p YoY) vs. FSC 42.6%(-1.7%p)

저비용항공사(LCC)는 합리적 가격대에 다양한 항공권을 제공함으로써 풀서비스 대형항공사(FSC)가 충족시키지 못한 여행수요를 공략해 항공여객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최근 외국인 입국자수 감소에 따라 인바운드 여객 비중이 10%대로 제한적인 LCC의 국제선 여객점유율은 지속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LCC 6개사의 국제선 유입 여객수는 전년대비 36.5% 급증하며 M/S가 전년대비 6.4%p 높아진 26.8%를 기록했다. 양대 국적사는 0.2% 감소에 그쳐 올해 들어 역신장폭이 가장 작았다. 반면 외항사의 유입여객수는 전년대비 10.2% 줄어들며 지난 4월 이후 두자리수 감소세가 이어졌다.

■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화물 25.7만톤(+10.8% YoY)

화물수송량은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인천공항 국제선 총화물은 전년대비 11% 증가하며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두자리수 성장을 보였다. 직화물(환적, 우편물 제외) 기준으로는 14% 늘었다. 미국과 유럽노선의 화물 수송량이 각각 8%, 13% 증가한 가운데 중국노선은 3% 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항공화물 수요의 강세에 힘입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총화물은 각각 전년대비 10%, 3% 증가했다. FSC는 3분기 여객수요 부진을 화물 호실적이 만회하는 모습이다.

■ 4분기 실적모멘텀에 주목, 항공주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될 것

기대를 하회하는 3분기 실적부진을 감안해도 최근 항공업종의 주가 조정은 과도해 보인다. 구조적 시장점유율 이탈이 우려되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2018F PBR은 0.9배에 못 미쳐, 10월 추석연휴 수혜 및 4분기 화물 성수기효과를 감안하면 단기 밸류에이션 매력을 놓치기는 어렵다. 비수기인 4분기 실적모멘텀과 아웃바운드 중심의 구조적 성장성이 부각되는 제주항공을 항공업종 top pick으로 유지한다. 9월 중순 이후 주가는 9% 하락했는데 실적우려가 아닌 업종 전반에 대한 무차별적 투자심리 악화 영향이 크다. FSC와 차별화된 3분기 이익증가가 예상되며 4분기 항공주 투자환경은 비수기 여행수요에 집중하는 LCC에게 유리한 만큼 최근 주가 조정은 저가 매수기회로 판단된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기계: 중국 굴삭기 9월 판매량: 산뜻하게 소성수기 진입

■ 9월 시장판매: 전년대비 96%, 3분기 합산 107% 증가

9월 중국 굴삭기 판매량(내수 기준)은 9,530대로 전년대비 96.3% 늘어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굴삭기 업황이 회복돼 기저효과(지난해 9월은 전년대비 80% 증가)가 있었음에도 2배 가깝게 증가했다. 3분기 판매량은 24,484대로 전년동기대비 107.3% 증가했다. 조만간 실적발표를 앞둔 건설기계 완성차(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업체 및 진성티이씨를 포함한 기자재 업체들의 안정적인 이익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다.

■ 9월 업체별 순위: Sany 1위, 두산인프라코어 4위

상위 5개 업체의 양호한 판매세도 이어졌다. 업체별 판매 순위는 중국 업체인 Sany 가 1,954대(+106.6% YoY)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Caterpillar 1,165대(+79.8% YoY), 3위는 XCMG 1,084대(+212.4% YoY), 4위는 두산인프라코어 718대(+109.3% YoY), 5위는 Komatsu 613대(+64.3% YoY)이다. 현대건설기계는 313대를 팔아 전년대비 146.5% 늘었고, 판매량 순위 11위를 기록했다.

■ 올해 12만대 이상 판매 예상

연간 판매량이 지난해 6.3만대의 2배 수준인 12~13만대를 기록할 것이다. 올해 9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9.4만대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06.5% 증가한 것으로 올해 남은 3개월 동안 판매량이 50%만 늘어도 연간 12만대 이상 판매량 기록은 무난하다.

■ 소성수기 진입한 굴삭기 업황

3분기가 산업 비수기지만, 4분기부터는 다시 계절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한다. 특히 전통적으로 4분기에는 다음해 업황 기대감이 선반영 되는 시기임을 감안하면 10월부터 안정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교체수요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 주석의 집권 2기가 시작됨에 따라 숭안 신도시 경제특구 설립 및 일대일로 정책 등에 힘입은 안정적인 중장기 굴삭기 수요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업황이 급격하게 회복된 만큼 줄어든 재고를 채우기 위해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의 재고 쌓기 활동이 3분기에도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나스미디어(089600)

매수(유지)
목표가: 72,000원(유지)
종가(10/13): 55,800원

3Q17 Preview: 분기 이익 모멘텀 당분간 지속

■ 3분기 실적 컨센서스 부합 전망

2017년 3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74억원(+78.6% YoY)과 77억원(+126.6%)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다. 엔서치마케팅 인수(2016년 9월)에 따른 기저 차이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인수 효과를 제외해도 견고한 실적 개선이다. 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23.8%와 57.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PC/모바일)과 IPTV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31.6%와 38.8% 늘어 외형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별도 영업이익률은 28.4%로 전년동기 대비 6.1%p 상승한 것으로 추산된다. 2016년에 지하철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직접 취득해 고정비가 늘었지만 광고 판매율 상승으로 수익성이 제고되었다.

■ 분기 이익 모멘텀 당분간 지속

하반기에도 실적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이다. 2017년 상반기에는 대통령 선거, 모바일 대작 게임 출시 등의 광고 이벤트가 있었다. 특히 리니지 Red Knights, 리니지 Revolution 등의 대작 게임이 출시되면서 광고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반면 이벤트가 없는 2017년 하반기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상반기 게임 업종 취급고 비중은 18%로 모바일 대작 게임 출시가 없었던 2016년 평균 15%와 유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의 우려와 달리 일부 대작 출시 효과가 취급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뉴미디어 광고 선호 현상에 따른 구조적 성장을 투자포인트로 삼아야 한다. 한편 2016년 4분기~2017년 1분기는 국정 불안으로 광고 경기가 부진해 기저가 낮다. 4분기는 연간 최대 성수기이며 2018년 1분기는 평창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어 분기 이익 모멘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목표주가 72,000원 유지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72,000원(12개월 forward EPS에 목표 PER 25배 적용)을 유지한다. 최근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여 12개월 forward PER은 18.5배까지 높아졌다. 다만 여전히 12개월 forward PER 밴드 하단이다. 또한 2019년까지 EPS가 연평균 38.7%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저평가 상태다. 뉴미디어 광고 시장의 성장세는 둔화됐지만 대형 광고주들이 본격적인 시장에 진입해 미디어렙 활용이 늘고 있다. 게다가 2016년에 진행된 매체 투자가 레버리지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밸류에이션 re-rating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45	12	10	1,202	NM	12	41.6	31.4	5.9	14.3	0.7
2016A	70	15	12	1,413	17.6	17	28.0	19.2	3.5	14.1	1.0
2017F	120	35	24	2,605	84.4	38	21.4	12.5	4.1	21.9	0.8
2018F	140	42	28	3,147	20.8	45	17.7	10.6	3.5	22.0	1.0
2019F	158	48	34	3,769	19.7	52	14.8	9.2	2.9	21.9	1.3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삼성전자(005930)

매수(유지)

목표가: 3,250,000원(유지)

종가(10/13): 2,700,000원

3Q17 잠정실적 예상치 부합

■ 3Q17 매출액 63조원, 영업이익 14.5조원의 잠정치 발표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액은 63조원, 영업이익은 14.5조원으로 우리 추정치를 각각 0.7% 하회, 1.6% 상회했다. 부문별 영업이익 추정치는 반도체 10.0조원, DP 0.9조원, IM 3.3조원, CE 0.3조원으로 IM부문의 영업이익이 우리 추정치(2.8조원)를 상회했고 반도체와 DP부문의 이익이 소폭 하회했다. 반도체부문의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소폭 하회한 이유는 가격보다는 디램과 낸드의 bit growth가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출하량은 소폭 부진했지만 가격상승폭은 디램 6%, 낸드 2%로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4분기에도 디램의 가격상승이 지속되면서 당초 예상했던 수준의 이익증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3,250,000원을 유지한다.

■ 4분기 영업이익 16.4조원 예상. 반도체와 DP부문의 이익증가

4분기 매출액은 71.8조원, 영업이익은 16.4조원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13%씩 증가할 전망이다. 이익이 증가하는 사업부문은 반도체와 DP다. 반도체부문은 디램의 가격상승과 낸드의 출하량 증가가 매출액과 이익을 증가시킬 것이다. DP의 경우 LCD패널의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OLED패널의 출하량이 전분기대비 40% 이상 증가하면서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반면 IM부문의 경우 계절적으로 high-end모델의 비중 하락과 마케팅 비용의 증가로 이익이 감소할 전망이다.

■ 메모리 bit growth 연간 가이드스 하회할 듯

4분기 디램과 낸드의 bit growth는 각각 3%, 17%로 예상하는데 이 경우 연간 bit growth는 디램 18%, 낸드 26%로 회사의 연간 가이드스를 하회하게 된다. 3분기 bit growth가 당초 예상을 소폭 하회했고 4분기도 당초 예상보다 출하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반도체재고가 일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디램의 경우 가격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부진이 재고증가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연말연초 메모리 생산라인의 전환(Planar 낸드라인의 디램 및 3D 낸드 전환)을 대비한 재고축적의 가능성이 높아 4분기 메모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지속적인 가격상승으로 인한 메모리 채용량둔화로 내년 메모리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DP부문 4분기 영업이익 1.9조원

DP부문의 3분기 영업이익은 0.9조원으로 전분기대비 49% 감익했다. LCD 0.3조원, OLED 0.6조원으로 전분기대비 두 사업 모두 이익이 감소했다. LCD는 패널가격 하락이, OLED는 애플향 패널 초기 생산으로 인한 낮은 가동률과 수율이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4분기에는 OLED패널 생산량이 전분기대비 43% 증가하고 가동률과 수율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이 1.9조원으로 전분기대비 119% 증가할 전망이다. 9월부터 애플향 OLED패널 수율과 생산량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은 유효하다.

■ 스마트폰사업 수익성 예상보다 좋아

3분기 IM부문 영업이익은 3.3조원으로 우리 예상인 2.8조원을 18% 상회했다. 갤럭시노트8의 판가가 전작대비 10% 가량 높아졌음에도 판매량이 예상에 부합했고 새로이 출시된 중저가 신모델의 판매는 예상보다 좋아 실적이 좋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4분기에는 high-end 모델 비중이 낮아져 ASP가 하락하고 계절적으로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이익이 감소하겠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이익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4분기 IM부문의 영업이익은 2.8조원으로 예상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200,653	26,413	18,695	126,305	(17.5)	47,344	10.0	3.1	1.2	11.2	1.7
2016A	201,867	29,241	22,416	157,967	25.1	49,954	11.4	4.1	1.5	12.5	1.6
2017F	246,753	54,872	40,283	289,996	83.6	79,689	9.3	4.0	1.8	20.0	1.2
2018F	294,263	62,460	44,901	321,096	10.7	91,558	8.4	3.3	1.4	18.9	2.0
2019F	308,976	64,175	46,506	341,313	6.3	95,849	7.9	2.8	1.2	16.8	2.9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송원산업(004430)

매수(유지)
목표가: 27,000원(유지)
종가(10/13): 18,300원

3Q17 Preview: 좋은 매수 기회

■ 3분기 감익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

3분기 영업이익은 16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5% 감소할 것이라던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 허리케인 하비의 일회성 영향 때문이다. 허리케인 영향으로 8~9월 사이 미국 석유화학 설비들이 대거 가동을 중단했던 탓에 미국향 폴리머 안정제 판매량은 평상시 대비 5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비 영향으로 폴리머 안정제 매출은 일회성 요인이 없을 때에 비해 24% 줄어든 1,142억원(-12% QoQ)에 그칠 것이다. 또한, 윤활유 첨가제 매출도 전분기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증설 작업과 함께 제품 품질 테스트가 이어지면서 윤활유 첨가제 전설비가 6~8월 내내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인 모두 일회성이고, 3분기에만 그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추가적인 일회성 손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주가는 이미 악재를 모두 반영했고, 지금부터 매수할 기회라고 판단된다.

■ 4분기부터 여러 긍정적 요인 부각될 것

9월말부터 앞서 언급했던 일회성 요인들이 소멸되면서, 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48%, 전년동기 대비 135% 증가할 것이다. 미국의 석유화학 설비들이 9월말~10월초 사이 대부분 재가동을 시작했고, 홍수 영향으로 폴리머 안정제 재고가 어느 정도 유실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고비축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활유 첨가제의 경우 9월부터 증설된 설비(기존 생산능력의 4배)가 가동을 시작했다. 가동률을 75%로 가정할 때, 4분기 윤활유 첨가제 매출은 전분기 대비 290% 늘어난 184억원에 달하고,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증설된 설비가 기술적 문제 없이 정상가동 중이며, 주요 고객사와의 공급계약도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매출증가 가시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 다시 관심 가질 시기

송원산업의 매수를 추천한다. 4분기는 통상 수요가 적어 화학산업의 비수기인데, 송원산업은 그 가운데서도 호실적을 기록할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다. 더구나, 올해 4분기~내년 1분기 사이 신규 크래커 가동에 따른 강한 수요에 힘입어 폴리머 안정제 공급은 크게 타이트해질 것이다. 주요 설비만 놓고 보더라도, 생산능력 연 1,050만톤에 달하는 9기의 에틸렌 생산설비가 동기간 가동에 들어간다. 9기 중 Dow Chemical의 설비가 가장 먼저 가동을 시작했다. 9월말부터 가동에 들어간 이 설비는 4분기 내 풀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수년간 이어질 미국 석유화학 증설 랠리는 이제 시작이며, 2~3년간 폴리머 안정제 설비의 유의미한 증설은 없어 송원산업의 구조적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654	49	30	1,241	NM	84	11.7	7.5	1.1	9.9	0.5
2016A	694	76	43	1,802	45.2	111	9.5	5.8	1.2	12.9	0.8
2017F	739	70	44	1,847	2.5	102	9.9	6.6	1.1	11.8	0.8
2018F	1,001	126	86	3,567	93.1	158	5.1	4.0	0.9	19.7	0.8
2019F	1,059	139	96	4,008	12.3	171	4.6	3.4	0.8	18.4	0.8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CJ CGV(079160)

매수(유지)

목표가: 88,000원(유지)

종가(10/13): 63,500원

3Q17 Preview: 높아지는 해외 이익 기여도

■ 3분기 영업이익 11% 감소 예상

3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한 4,434억원, 영업이익은 10.6% 감소한 304억원으로 예상된다. 국내 실적은 박스오피스 역성장으로 부진했지만 중국, 터키, 베트남, 4DX 등 해외 사업의 성과 확대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3분기 국내 박스오피스 매출액과 관객수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2.9%, 11.6% 감소해 본사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565억원(-11.1% YoY), 219억원(-43.6% YoY)을 기록할 것이다. 3분기 중국 박스오피스는 중국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경신한 '전량2(7월 27일 개봉)'의 큰 인기 등으로 155억위안으로 43.2% 성장했다. 중국 실적은 시장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흑자 전환해 연결 이익에 기여할 것이다. 4DX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및 로컬 콘텐츠 인기 등에 힘입어 수익 호전이 나타날 전망이다. 지역별 영업이익은 중국 52억원(연결), 베트남 14억원, 터키 -17억원(무형자산상각비 반영), 4DX 46억원으로 예상된다.

■ 국내 수익성 방어에 주력, 해외 성장 가속화

최근 박스오피스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아 부진한 실적을 지속하고 있는 본사는 일부 직영 사이트의 위탁 전환, 비용 통제 기조 지속 등으로 수익성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4분기 들어서는 추석 특수 등이 있긴 하나 시장이 반등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안정적인 이익 달성 가능성이 크다. 10월 14일 기준 국내 박스오피스와 관객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86.0%, 86.4% 늘었다. 해외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은 박스오피스 성장이 재개되며 이익 기여도를 높이고 있고, 4DX는 작품에 따라 분기 실적 편중은 존재하나 연간으로는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다. 베트남과 터키 역시 현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기반으로 꾸준히 수익 호전이 예상된다.

■ 해외 성장성에 주목, 매수 의견 유지

CJ CGV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주가 88,000원(SOTP 방식)을 유지한다. 해외 실적이 사업 성과 확대로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어 중장기 성장성을 높여 수익 호전을 지속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실적은 박스오피스 성장 재개와 사업 안정화로 수익성 향상세가 이어질 것이다. 터키 법인은 성수기에 진입했고, 추석 및 국경절 특수로 국내와 중국도 10월에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4분기에는 안정적인 수익 호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1,194	67	52	2,455	211.9	176	51.3	17.6	6.3	12.9	0.3
2016A	1,432	70	12	583	(76.3)	203	120.8	14.1	4.0	3.1	0.5
2017F	1,711	66	9	441	(24.3)	209	144.0	12.4	4.4	2.8	0.5
2018F	1,925	96	40	1,909	332.7	242	33.3	10.1	4.6	13.5	0.6
2019F	2,125	120	70	3,301	72.9	271	19.2	8.7	4.3	23.0	0.6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CJ CGV(079160)

매수(유지)
목표가: 88,000원(유지)
종가(10/13): 63,500원

3Q17 Preview: 높아지는 해외 이익 기여도

■ 3분기 영업이익 11% 감소 예상

3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한 4,434억원, 영업이익은 10.6% 감소한 304억원으로 예상된다. 국내 실적은 박스오피스 역성장으로 부진했지만 중국, 터키, 베트남, 4DX 등 해외 사업의 성과 확대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3분기 국내 박스오피스 매출액과 관객수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2.9%, 11.6% 감소해 본사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565억원(-11.1% YoY), 219억원(-43.6% YoY)을 기록할 것이다. 3분기 중국 박스오피스는 중국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경신한 '전량2(7월 27일 개봉)'의 큰 인기 등으로 155억위안으로 43.2% 성장했다. 중국 실적은 시장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흑자 전환해 연결 이익에 기여할 것이다. 4DX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및 로컬 콘텐츠 인기 등에 힘입어 수익 호전이 나타날 전망이다. 지역별 영업이익은 중국 52억원(연결), 베트남 14억원, 터키 -17억원(무형자산상각비 반영), 4DX 46억원으로 예상된다.

■ 국내 수익성 방어에 주력, 해외 성장 가속화

최근 박스오피스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아 부진한 실적을 지속하고 있는 본사는 일부 직영 사이트의 위탁 전환, 비용 통제 기조 지속 등으로 수익성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4분기 들어서는 추석 특수 등이 있긴 하나 시장이 반등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안정적인 이익 달성 가능성이 크다. 10월 14일 기준 국내 박스오피스와 관객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86.0%, 86.4% 늘었다. 해외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은 박스오피스 성장이 재개되며 이익 기여도를 높이고 있고, 4DX는 작품에 따라 분기 실적 편중은 존재하나 연간으로는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다. 베트남과 터키 역시 현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기반으로 꾸준히 수익 호전이 예상된다.

■ 해외 성장성에 주목, 매수 의견 유지

CJ CGV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주가 88,000원(SOTP 방식)을 유지한다. 해외 실적이 사업 성과 확대로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어 중장기 성장성을 높여 수익 호전을 지속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실적은 박스오피스 성장 재개와 사업 안정화로 수익성 향상세가 이어질 것이다. 터키 법인은 성수기에 진입했고, 추석 및 국경절 특수로 국내와 중국도 10월에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4분기에는 안정적인 수익 호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1,194	67	52	2,455	211.9	176	51.3	17.6	6.3	12.9	0.3
2016A	1,432	70	12	583	(76.3)	203	120.8	14.1	4.0	3.1	0.5
2017F	1,711	66	9	441	(24.3)	209	144.0	12.4	4.4	2.8	0.5
2018F	1,925	96	40	1,909	332.7	242	33.3	10.1	4.6	13.5	0.6
2019F	2,125	120	70	3,301	72.9	271	19.2	8.7	4.3	23.0	0.6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0/10(화)	10/11(수)	10/12(목)	10/13(금)	10/16(월)	
유 가 증 권	종합주가지수	2,433.81	2,458.16	2,474.76	2,473.62	2,480.05	
	등락폭	39.34	24.35	16.6	-1.14	6.43	
	등락종목	상승(상한)	364(0)	513(0)	452(0)	272(0)	394(1)
		하락(하한)	450(0)	281(0)	330(0)	519(0)	411(0)
	ADR	78.17	83.85	87.98	81.95	86.29	
	이격도	10 일	101.61	102.45	102.87	102.54	102.42
		20 일	102.36	103.10	103.46	103.13	103.11
	투자심리	30	40	50	50	60	
	거래량	(백만 주)	222	202	256	235	223
	거래대금	(십억 원)	7,508	6,086	6,282	6,824	6,104
코 스 닥	코스닥지수	654.59	662.31	666.54	663.08	659.41	
	등락폭	1.77	7.72	4.23	-3.46	-3.67	
	등락종목	상승(상한)	416(0)	828(2)	559(2)	269(1)	358(1)
		하락(하한)	737(0)	305(0)	583(0)	896(0)	803(0)
	ADR	76.05	82.22	81.86	74.97	75.95	
	이격도	10 일	100.06	101.43	102.10	101.54	100.82
		20 일	99.60	100.67	101.21	100.65	100.05
	투자심리	40	50	60	60	60	
	거래량	(백만주)	554	558	561	617	549
	거래대금	(십억원)	2,832	2,980	3,449	4,935	3,867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 가 증 권	매수	2,952.0	1,754.9	1,305.0	328.1	99.7	207.2	151.1	16.6	502.2	95.7
	매도	3,022.1	1,783.0	1,255.6	215.7	111.9	282.4	123.3	13.3	509.0	46.7
	순매수	-70.1	-28.2	49.4	112.4	-12.2	-75.2	27.8	3.3	-6.8	49.0
	10월 누계	-495.0	1,698.4	-1,158.3	-338.0	-82.9	-285.9	32.7	-18.0	-466.2	-45.1
	17년 누계	-6,004.6	6,896.9	-4,565.6	6,086.6	-1,665.0	-3,268.4	-87.2	-728.3	-4,903.5	3,673.2
코 스 닥	매수	3,313.1	383.2	159.8	46.5	12.7	30.0	26.6	2.6	41.4	21.0
	매도	3,187.9	357.4	297.8	73.1	21.4	80.6	48.9	2.3	71.6	33.9
	순매수	125.2	25.8	-138.1	-26.6	-8.7	-50.6	-22.4	0.3	-30.1	-13.0
	10월 누계	342.1	108.0	-418.7	-70.3	-25.0	-125.5	-59.2	3.4	-142.1	-31.3
	17년 누계	3,054.7	2,102.7	-3,862.8	-987.8	-344.7	-862.8	-535.8	-118.2	-1,013.6	-1,294.7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유통업	9,577	전기전자 -50,168
화학	6,131	기타금융업 -23,216
통신업	5,709	미분류 -12,300
호텔신라	5,676	SK하이닉스 -21,255
KT	4,316	삼성전자 -9,735
현대로보틱스	4,106	고려아연 -8,100
삼성물산	3,991	삼성전기 -7,879
코스맥스	3,829	삼성SDI -7,851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24,423	전기전자 -85,940
서비스업	15,709	은행 -3,365
유통업	14,607	의약품 -2,742
롯데케미칼	18,356	SK하이닉스 -33,388
아모레퍼시픽	9,906	삼성SDI -22,781
코스맥스	7,981	삼성전기 -16,505
POSCO	6,743	LG화학 -13,432
삼성물산	6,255	삼성전자 -10,590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미분류	12,384	전기전자 -2,394
은행	1,499	비금속 -1,474
서비스업	1,308	운수장비 -351
TIGER 200 IT	7,475	KODEX 레버리지 -17,369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6,568	ARIRANG 200 -1,947
TIGER 글로벌4차산업혁신기술(합성 H)	6,209	현대시멘트 -1,641
KINDEX S&P아시아TOP50	2,504	SK하이닉스 -1,564
KODEX 은행	2,215	TIGER 헬스케어 -1,020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가스	5,471	전기전자 -25,299
철강금속	4,349	기타금융업 -7,319
운수장비	4,072	서비스업 -4,140
TIGER 200	10,031	ARIRANG 200 -12,128
KOSEF 200	6,566	SK하이닉스 -9,390
아모레퍼시픽	5,474	삼성SDI -7,051
신세계	4,277	SK -5,696
한국전력	3,828	삼성전자 -5,429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유통업	51,265	전기전자 -179,757
화학	49,994	의약품 -10,764
철강금속	43,899	은행 -7,245
POSCO	33,529	SK하이닉스 -69,723
롯데케미칼	26,375	삼성SDI -44,458
아모레퍼시픽	23,153	삼성전자 -34,495
코스맥스	19,671	삼성전기 -34,307
호텔신라	18,620	LG화학 -27,011
현대로보틱스	13,444	KODEX 200 -15,551
한국전력	13,434	카카오 -14,241
한국콜마	12,967	기업은행 -7,253
신세계	12,232	SK이노베이션 -6,296
NAVER	11,808	SK네트웍스 -5,944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철강금속	39,960	전기전자 -45,699
유통업	20,521	화학 -14,642
서비스업	16,928	증권 -11,214
POSCO	39,420	SK하이닉스 -55,623
KODEX 200	15,719	삼성전자 -27,678
삼성SDI	14,368	NAVER -18,767
카카오	12,575	롯데케미칼 -14,958
LG전자	10,042	한국전력 -9,200
고려아연	9,405	삼성바이오로직스 -7,460
일진머티리얼즈	8,263	LG이노텍 -6,109
하나투어	7,948	현대제철 -5,674
삼성물산	7,618	현대로보틱스 -5,581
삼성엔지니어링	7,341	현대모비스 -5,541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1,003	제약	-9,323	디지털컨텐츠	4,078	제약	-9,603
사업지원	635	도매	-8,440	오락,문화	3,154	도매	-4,565
비금속	333	반도체	-7,769	기계,장비	1,177	반도체	-4,032
포스코켄텍	939	셀트리온헬스케어	-7,479	파라다이스	3,331	셀트리온	-7,888
에스엠	837	셀트리온	-4,767	컴투스	2,434	셀트리온헬스케어	-5,101
유니테스트	768	테스	-2,461	에스에프에이	1,612	휴젤	-1,613
에이티젠	689	CJ E&M	-2,380	풀어비스	936	주성엔지니어링	-1,420
연우	653	SKC코오롱PI	-2,193	이오테크닉스	834	포스코켄텍	-1,078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404	사업지원	-288	오락,문화	1,650	제약	-5,791
금속	260	운송장비,부품	-194	디지털컨텐츠	755	기계,장비	-1,417
기계,장비	176	제약	-143	반도체	620	IT부품	-1,406
JYP Ent.	255	유진테크	-336	파라다이스	1,182	셀트리온	-4,562
테스	216	우리산업	-165	풀어비스	922	셀트리온헬스케어	-1,034
원익IPS	195	셀트리온헬스케어	-157	이엔에프테크놀로지	789	이녹스첨단소재	-883
파라다이스	149	참좋은여행	-155	이오테크닉스	772	HB테크놀로지	-827
주성엔지니어링	139	피에스케이	-143	원익IPS	578	메디톡스	-766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9,098	제약	-52,583	제약	27,141	반도체	-11,566
디지털컨텐츠	6,574	도매	-26,567	도매	9,497	IT부품	-6,100
사업지원	2,050	반도체	-20,084	오락,문화	6,997	방송서비스	-5,247
파라다이스	8,258	셀트리온	-41,002	셀트리온	29,457	비에이치	-10,720
풀어비스	3,877	셀트리온헬스케어	-27,424	셀트리온헬스케어	10,659	원익IPS	-7,697
웹젠	1,899	상신전자	-8,638	에코프로	5,875	메디톡스	-6,606
에스엠	1,599	이녹스첨단소재	-5,186	파라다이스	5,553	SK머티리얼즈	-6,347
컴투스	1,300	에스엠코어	-4,115	포스코켄텍	4,588	CJ E&M	-5,154
모두투어	1,142	주성엔지니어링	-3,716	엘앤에프	2,089	인터플렉스	-3,945
유니테스트	1,012	SKC코오롱PI	-3,691	신라젠	1,914	에이치엘비	-2,102
연우	977	서울반도체	-3,613	동진씨미켄	1,788	솔브레인	-1,971
참좋은여행	854	테스	-3,460	와이엠씨	1,779	이녹스첨단소재	-1,912
CJ프레시웨이	527	휴젤	-2,973	유진테크	1,741	젠티스	-1,591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동양고속	42 일	KCC	20 일	AP위성	25 일	동원개발	39 일
유화증권	38 일	하이트진로	19 일	투비소프트	25 일	씨엠에스에듀	19 일
SBS미디어홀딩스	31 일	현대에이치씨엔	16 일	씨큐브	24 일	신한제3호스팩	18 일
KISCO홀딩스	26 일	현대엘리베이	12 일	금강철강	21 일	경동제약	16 일
S&T홀딩스	24 일	삼양홀딩스	12 일	폭스브레인	20 일	네오팜	9 일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21 일	유화증권	11 일	씨노텍	17 일	하이룩코리아	9 일
애경유화	19 일	광주은행	9 일	유안타제2호스팩	16 일	대원산업	9 일
노루홀딩스	17 일	JB금융지주	9 일	나이스트정보통신	16 일	휴온스	7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130,514	삼성전자	407,012	파라다이스	26,328	셀트리온	130,634
삼성물산	128,025	현대중공업	254,786	필어비스	6,425	셀트리온헬스케어	19,541
LG이노텍	76,611	현대차	111,180	에스엠	6,130	포스코켄텍	19,033
아모레퍼시픽	42,683	LG전자	102,770	이오테크닉스	5,207	서울반도체	12,359
코스맥스	31,640	삼성SDI	89,251	에스앤씨엔진그룹	4,464	테스	10,973
호텔신라	29,797	SK이노베이션	76,758	GS홈쇼핑	4,394	파라다이스	10,898
NAVER	28,152	LG생활건강	65,834	유니테스트	3,945	CJ E&M	9,313
POSCO	28,001	POSCO	62,033	CJ E&M	3,046	에코프로	8,952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철강금속	43,899	39,960	83,860	오락,문화	9,098	6,997	16,094
유통업	51,265	20,521	71,786	사업지원	2,050	740	2,790
서비스업	17,133	16,928	34,061	금융서비스	224	125	349
POSCO	33,529	39,420	72,950	파라다이스	8,258	5,553	13,812
호텔신라	18,620	1,223	19,843	필어비스	3,877	233	4,109
삼성물산	11,365	7,618	18,983	모두투어	1,142	1,014	2,156
신세계	12,232	2,747	14,980	동진씨미켄	76	1,788	1,864
LG전자	4,485	10,042	14,527	에스에프에이	297	1,203	1,500
LG생활건강	5,040	7,161	12,201	이오테크닉스	342	1,120	1,462
하나투어	3,016	7,948	10,964	아모텍	96	1,359	1,455
현대미포조선	6,425	3,539	9,963	한글과컴퓨터	353	755	1,108
LG디스플레이	5,327	2,006	7,333	CJ프레시웨이	527	365	893
한샘	3,628	3,552	7,179	필옵틱스	409	417	826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대상	24 일	진양화학	36 일
삼양홀딩스	24 일	KPX그린케미칼	31 일
선도전기	17 일	방림	19 일
KR모터스	17 일	현대비앤지스틸	15 일
유진투자증권	16 일	미원화학	14 일
세진중공업	14 일	GS글로벌	14 일
SK가스	14 일	계룡건설	13 일
KODEX 미국S&P 고배당커버드콜(합성 H)	13 일	사조오양	12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한양이엔지	20 일	레드캡투어	31 일
태웅	18 일	원일특강	26 일
케이피엠테크	12 일	뉴트리바이오텍	25 일
경동제약	12 일	모아텍	21 일
제일홀딩스	12 일	삼일	21 일
모아텍	11 일	코메론	19 일
디에이테크놀로지	10 일	한일화학	18 일
네오위즈	10 일	한국가구	18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369,086	한국전력	-58,385
SK하이닉스	-282,618	LG디스플레이	-54,912
LG화학	-158,439	NAVER	-38,165
엔씨소프트	-127,931	LG이노텍	-35,358
삼성전기	-92,367	아모레퍼시픽	-34,667
삼성SDI	-80,910	삼성바이오로직스	-29,993
LG디스플레이	-64,706	SK하이닉스	-20,769
SK이노베이션	-62,410	LG유플러스	-13,672

KOSDAQ			
기	관	외	국 인
셀트리온헬스케어	-106,532	메디톡스	-33,783
셀트리온	-72,815	더블유게임즈	-8,852
휴젤	-28,800	SK머티리얼즈	-8,715
메디톡스	-15,234	GS홈쇼핑	-7,444
제일홀딩스	-13,489	펄어비스	-6,441
상신전자	-8,638	원익IPS	-5,728
포스코컴텍	-8,582	파트론	-4,469
애플론	-8,537	에스앤씨엔진그룹	-4,424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179,757	-45,699	-225,456
증권	-463	-11,214	-11,677
의약품	-10,764	-640	-11,404
SK하이닉스	-69,723	-55,623	-125,346
삼성전자	-34,495	-27,678	-62,174
LG화학	-27,011	-2,617	-29,627
삼성바이오로직스	-4,869	-7,460	-12,329
하나금융지주	-3,946	-4,216	-8,162
LG이노텍	-1,361	-6,109	-7,470
후성	-3,541	-264	-3,806
S-Oil	-1,417	-2,143	-3,561
GS건설	-145	-3,401	-3,546
대웅제약	-2,642	-899	-3,542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반도체	-20,084	-11,566	-31,650
제약	-52,583	27,141	-25,442
도매	-26,567	9,497	-17,070
비에이치	-981	-10,720	-11,701
메디톡스	-2,953	-6,606	-9,559
상신전자	-8,638	-683	-9,322
원익IPS	-588	-7,697	-8,285
이녹스첨단소재	-5,186	-1,912	-7,099
CJ E&M	-991	-5,154	-6,145
인터플렉스	-1,357	-3,945	-5,302
주성엔지니어링	-3,716	-964	-4,679
테스	-3,460	-900	-4,360
에스엠코어	-4,115	-2	-4,11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카카오	298	47,832
삼성바이오로직스	89	35,010
엔씨소프트	46	19,793
LG디스플레이	592	16,811
삼성전자	5	12,829
현대차	67	10,373
현대제철	187	10,141
삼성전기	100	10,04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66	45,190
포스코캠텍	133	4,212
신라젠	84	3,952
셀트리온헬스케어	58	3,807
CJ E&M	41	3,288
휴젤	7	3,070
메디투스	6	2,738
SK머티리얼즈	16	2,736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716	10,032,179
SK하이닉스	39,005	3,358,324
삼성바이오로직스	3,700	1,437,554
LG디스플레이	47,876	1,388,399
카카오	7,515	1,146,081
현대차	6,721	1,038,462
KB금융	17,765	1,030,387
LG전자	11,499	1,017,68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5,641	4,341,074
신라젠	7,308	339,086
바이로메드	2,468	299,108
파라다이스	16,199	270,528
로엔	2,530	234,317
셀트리온헬스케어	3,571	223,205
코미팜	4,128	144,493
SK머티리얼즈	670	114,097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보험업	1,509	운수장비	-4,788
전기전자	1,162	기타금융업	-3,940
운수창고	1,110	유통업	-3,870
팬오션	2,684	삼성중공업	-4,988
한화손해보험	2,308	맥쿼리인프라	-2,531
LG디스플레이	1,742	SK네트웍스	-2,140
두산중공업	1,553	대우건설	-1,740
금호타이어	1,400	메리츠증권증권	-1,496
KR모터스	1,161	흥아해운	-1,469
한온시스템	1,094	SK하이닉스	-1,338
오리온홀딩스	839	삼성엔지니어링	-1,322
기업은행	590	두산인프라코어	-1,082
삼성전자	543	기아차	-95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금융	919	의료,정밀기기	-1,747
전문기술	909	반도체	-945
종합건설	655	기계,장비	-837
포스코 ICT	960	루트로닉	-1,244
SBI인베스트먼트	835	이화전기	-1,007
KD건설	744	유니크	-536
하림	573	덕산네오룩스	-343
셀트리온헬스케어	572	툽텍	-327
시노팩스	495	동진세미켐	-320
국일제지	492	코리아나	-305
우리기술투자	427	휘닉스소재	-273
에스맥	421	서부T&D	-214
알비케이이엠디	376	포스코캠텍	-214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0/10(화)	10/11(수)	10/12(목)	10/13(금)	10/16(월)
외국인	6,896.9	1,698.4	1,698.4	817.7	700.7	244.0	-35.8	-28.2
기관계	-4,565.6	-1,158.3	-1,158.3	-561.9	-533.9	-221.2	109.4	49.4
(투신)	-3,268.4	-285.9	-285.9	-35.1	-26.8	-45.1	-103.6	-75.2
(연기금)	2,434.0	178.9	178.9	91.0	31.2	20.5	21.8	14.3
(은행)	-728.3	-18.0	-18.0	-8.7	-15.0	-1.7	4.1	3.3
(보험)	-1,665.0	-82.9	-82.9	-29.5	-9.0	-4.1	-28.1	-12.2
개인	-6,004.6	-495.0	-495.0	-310.4	53.8	-54.8	-113.5	-70.1
기타	3,673.2	-45.1	-45.1	54.6	-220.5	31.9	39.9	49.0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9/29(금)	10/10(화)	10/11(수)	10/12(목)	10/13(금)
KOSPI	1,961.3	2,026.5	2,458.2	2,394.5	2,433.8	2,458.2	2,474.8	2,473.6
고객예탁금	22,695.6	22,754.4	24,541.0	23,139.8	23,979.9	24,107.4	26,196.1	24,541.0
(증감액)	6,853.1	58.8	1,786.6	-1,215.6	840.1	127.5	2,088.7	-1,655.1
(회전율)	28.8	24.8	47.9	33.8	43.1	37.6	37.1	47.9
실질예탁금증감	7,687.7	-3,211.2	2,954.8	-1,024.2	986.0	39.4	1,744.6	2,578.8
신용잔고(KOSPI)	3,035.6	2,929.1	0.0	4,019.0	4,025.0	3,984.8	4,008.0	0.0
신용잔고(KOSDAQ)	3,491.2	3,848.7	0.0	4,292.6	4,280.9	4,257.4	4,267.2	0.0
미수금	151.0	125.6	161.4	107.9	102.9	90.7	134.8	161.4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9/28(목)	9/29(금)	10/10(화)	10/11(수)	10/12(목)
전체주식형	72,184	-3,960	-261	494	316	-41	-40	-181
(ex.ETF)		-5,087	-24	33	88	3	37	-64
국내주식형	54,368	-3,967	-272	456	256	-53	9	-228
(ex.ETF)		-5,161	-117	-4	29	-9	3	-111
해외주식형	17,816	7	11	38	59	12	-49	47
(ex.ETF)		74	93	38	59	12	34	47
주식혼합형	9,073	1,034	10	13	18	4	14	-8
채권혼합형	20,481	-5,861	20	131	-40	-6	18	9
채권형	104,557	1,956	-468	-279	223	-241	-6	-221
MMF	109,851	1,856	2,831	-2,356	-2,839	-717	2,181	1,36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0/10(화)	10/11(수)	10/12(목)	10/13(금)	10/16(월)
한국	5,963	1,498	1,498	721	618	216	-32	-25
대만	7,190	908	775	-	315	208	88	164
인도	5,069	-437	26	-62	133	-46	-	-
인도네시아	-1,188	-377	-78	-34	-59	29	-14	-
태국	492	212	132	70	48	15	-	-
남아공	-5,213	350	179	2	111	48	19	-
필리핀	1,035	-31	2	10	-25	5	13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분	2016년말	10/10(화)	10/11(수)	10/12(목)	10/13(금)	10/16(월)
회사채 (AA-)	2.14	2.48	2.47	2.44	2.46	2.47
회사채 (BBB-)	8.27	8.72	8.72	8.69	8.71	8.72
국고채 (3년)	1.64	1.94	1.93	1.90	1.92	1.93
국고채 (5년)	1.80	2.14	2.14	2.11	2.12	2.13
국고채 (10년)	2.08	2.42	2.42	2.39	2.39	2.40
미 국채 (10년)	2.56	2.36	2.35	2.32	2.27	-
일 국채 (10년)	0.06	0.06	0.07	0.07	0.06	-
원/달러	1,210.50	1,135.10	1,135.20	1,133.20	1,128.90	1,127.80
원/100엔	1,030.04	1,013.03	1,011.32	1,008.37	1,008.76	1,008.86
엔/달러	117.52	112.05	112.25	112.38	111.91	111.79
달러/유로	1.05	1.18	1.18	1.18	1.18	1.18
DDR3 1Gb (1333MHz)	1.15	1.24	1.24	1.24	1.24	-
DDR3 2Gb (1333MHz)	1.50	1.69	1.69	1.69	1.69	-
NAND Flash 16Gb (MLC)	1.87	2.98	2.96	2.95	2.95	-
CRB 지수	193.97	185.60	185.91	185.70	187.28	-
LME 지수	2,663.2	3,238.6	3,234.7	3,272.5	3,266.1	-
BDI	961	1,418	1,433	1,458	1,485	-
유가 (WTI, 달러/배럴)	53.90	50.92	51.30	50.60	51.45	-
금 (달러/온스)	1,131.35	1,291.40	1,289.25	1,290.25	1,299.6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9	10	11	12	13
	韓> 북한 노동당 창건일 日> 8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2380, 2223, 2320)	美> FOMC 회의록 공개 10월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2.1%, n/a, -0.4%) 日> 8월 핵심기계수주 MoM (3.4%, 1.0%, 8.0%)	韓> 읍선만기일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43, 250, 260) 9월 PPI MoM (0.4%, 0.4%, 0.2%) 日> 9월 PPI YoY (3.0%, 3.0%, 2.9%) 8월 3차 산업지수 MoM (-0.2%, 0.1%, 0.1%)	韓> 삼성전자 3Q 잠정실적 美> 9월 CPI MoM (0.5%, 0.6%, 0.4%) 10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101.1, 95.0, 95.1) 9월 소매판매 MoM (1.6%, 1.7%, -0.2%)
16	17	18	19	20
日> 8월 광공업생산 MoM (2.0%, n/a, 2.1%) 中> 9월 CPI YoY (1.6%, 1.6%, 1.8%) 9월 PPI YoY (6.9%, 6.5%, 6.3%)	美> 9월 광공업생산 (n/a, 0.0%, -0.9%) 유럽> 9월 CPI YoY (n/a, n/a, 1.5%) 10월 ZEW 서베이 예상 (n/a, n/a, 31.7)	韓> 9월 실업률 SA (n/a, n/a, 3.8%) 美> 베이지북 공개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2.1%) 9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1190, 1180) 中> 19차 당대회	韓> 금융통화위원회 (n/a, n/a, 1.2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n/a, 243) 9월 선행지수 (n/a, 0.1%, 0.4%) 中> 3Q GDP YoY (n/a, 6.8%, 6.9%) 日> 8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MoM (n/a, n/a, -0.1%)	美> 연준 옐런 연설 9월 기존주택매매(백만건) (n/a, 5.32, 5.35) 유럽> EU 정상회담
23	24	25	26	27
日> 8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2.1%) 유럽> 10월 소비자기대지수 (n/a, n/a, -1.2)	美> 10월 마켓 제조업 PMI (n/a, n/a, 53.1) 유럽> 10월 마켓 유토큰 제조업 PMI (n/a, n/a, 58.1)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n/a) 9월 내구재 주문 (n/a, 0.3%, 2.0%) 9월 신규주택매매(천건) (n/a, 550, 560)	韓> 3Q GDP YoY (n/a, n/a, 2.7%)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n/a, n/a) 9월 도매재고 MoM (n/a, n/a, 0.9%)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n/a, -0.4%, -0.4%) 9월 M3 통화공급 YoY (n/a, n/a, 5.0%)	美> 3Q GDP 연간화 QoQ (n/a, 2.0%, 3.1%) 10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n/a, n/a, n/a) 日> 9월 CPI YoY (n/a, n/a, 0.7%)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